

호다레 축제

이 독특하고 활기찬 풍년을 축하하는 축제의 명칭은 느티나무로 만들어진 길이 2.2m, 무게 약 600kg 인 남성의 상징 ‘호다레’에서 유래했습니다. 호다레는 ‘훨 정도로 열매를 맺은 벼 이삭’과 ‘남성의 성기’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 결실의 신입니다.

이 축제는 나가오카 교외에 있는 도치오 지구의 시모라이텐에서 3 월의 2 번째 일요일에 진행됩니다. 오곡 풍작과 자식의 순산을 기원하고 신체(신령이 깃든 신성한 물체)에 새 신부들을 태우고 진행합니다.

일본의 다른 지역에서도 남근을 상징으로 내세우는 축제가 있지만, 시모라이텐의 호다레가 최대 규모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호다레는 거의 1 년 내내 수령이 800 년인 큰 삼나무 옆에 있는 사당에 모셔져 있습니다. 현지의 전설에 따르면 이 삼나무는 암나무로, 원래는 옆에 수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에도시대(1603 년-1867 년) 중반쯤에 폭풍우로 수나무가 쓰러지면서 마을은 재난과 저출산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쓰러진 수나무를 대신해 나무와 돌로 된 호다레를 만들어 봉납하자 재난이 진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1 회 호다레 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매년 오전 11 시부터 진행됩니다. 먼저 도치오에 살고 있는 여성들이 사당의 호다레에 바칠 공물로 특별히 제작한 염주의 끈을 봉납합니다. 그다음 임산부가 참배하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의식이 끝나면 호다레를 사당에서 밖으로 들고나올 준비가 끝납니다.

호다레는 많은 남성들이 신사에서 짊어지고 밖으로 나오지만, 먼저 호다레의 주변에 금줄을 묶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줄의 무게는 약 200kg 에 달합니다. 그 후 남자들은 계단을 내려가 길가까지 호다레를 옮긴 후 신여에 실어 거리를 행진합니다. 여성은 행운을 빌고 호다레의 위에 앉거나 만집니다. 거리를 행진하기 전에 진행되는 사당 내 의식에는 현지인만 참여할 수 있지만, 행진은 축제에 온 여성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호다레를 만지면 건강한 아기를 내려 준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이 축제는 장래에 어머니가 될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마을의 주요 의식과 병행하여 시골 맛집이나 기념품, 게임 등이 있는 노점들이 문을 엽니다. 젊은 분이라면 경품을 추첨하는 뽑기나 후쿠모치(福餅, 복 떡)의 떡메치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어른들을 위해서는 물고기를 사용한 ‘독중개주’를 비롯해 술을 판매하는 노점이 문을 엽니다. 그 외에도 토속주와 음료수, 유명한 도치오의 명물인 점보 아부라게(기름에 튀긴 두부)가 있습니다. 기념품으로는 남근 모양을 한 홍보용 상품, 그리고 이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도치오 데마리’라는 전통적인 수제 공예품이 있습니다.

호다레 축제에서는 일본 문화를 즐겁게 배우고, 또 지역 사회나 소규모로 고립된 지방 마을에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시모라이텐은 나가오카역에서 차로 30 분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다.